

# 자사책 사재기 파문부터 서적도매상 부도까지

토픽으로 살펴본 2001년 출판계

올해 출판계 최대 이슈는 일부 출판사들의 자사책 사재기 파문이었다. 온·오프라인 서점계는 연초부터 치열한 책값 할인공방을 벌였고, 지난 11월 13일 발표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은 그동안 미봉책으로 남아있던 도서정가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여기에 서적도매상의 부도와 중소서점들의 폐업이 이어져 불황을 면치 못하는 출판계를 더욱 우울하게 했다.

올 한해 출판계는 전반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았다. 도서 유통업계에서는 전근대적 유통관행의 여파로 서적도매상이 부도로 쓰러지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불황 속에서도 인터넷서점계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오프라인서점계는 중소형 서점들의 잇단 폐업으로 내내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양업계간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여기에 '휴화산'이었던 도서정가제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그리고 자사책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파문은 출판계는 물론 사회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켜 출판인들을 사면초가에 빠트렸다.

## 자사책 사재기 파문으로 출판계 도덕성 타격 입어

올 한해 출판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자사책 사재기 파문이었다. 일부 출판사들이 자사책을 사재기해 베스트셀러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파장은 출판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사재기 파문은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양식과 도덕성을 저버린 채 독자를 호도한 일부 출판사에 책임이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베스트셀러 한두권에 출판사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우리 출판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몇몇 출판사들의 사재기 행태가 드러나자 출판계는 "기본적인 양식과 도덕성을 저버린 일부 출판인의 변칙적인 상업행위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자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형서점들의 사재기 방조·방임, 언론의 객관성 없는 보도, 베스트셀러에 의존하는 독서편식과 베스트셀러 집게방식의 문제 등 사재기 파문이 일 수밖에 없었던 출판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극복방안이 논의됐다.



제23회 출판포럼에서는 '한국 출판의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도서정가제와 사재기 등으로 공존과 공멸의 기로에 선 출판계가 활로 찾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자정작업도 병행됐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사재기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7월 4일 출판영업인회의와 공동으로 '올바른 출판 환경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사재기를 계속하는 출판사와 이를 조장하는 서점에 대해 명단공개,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 첫번째 조치로 《열한번째 사과나무》와 《아침인사》를 사재기한 혐의로 생각의나무를 7월 31일 회원에서 제명했고, 9월 4일 여백미디어와 은행나무를 같은 혐의로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또 비회원사인 동문선과 새천년출판사, 이룸도 같은 혐의가 확인돼 명단을 공개했다. 그 후 대형서점들의 몇몇 베스트셀러 순위가 뒤바뀌는 등 베스트셀러 순위 널뛰기현상도 나타났고, 출판계는 이런 등락을 '사재기 거품'이 빠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제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사재기 파문은 점차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재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출판사들의 겸허한 반성이나 솔직한 사과를 접하기는 힘들었다. 일부 출판사는 오히려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적극적으로 반발하기도 해 출판계를 부끄럽게 한 사재기 파문의 추이를 지켜본 독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 책값 할인 경쟁과 도서정가제 논란 뜨거워

책값 할인 문제도 올 한해 출판·서점계의 최대 골칫거리였다. 인터넷서점들간 할인경쟁으로 시작된 논쟁이 연중 계속되다가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책값 할인율이 30%까지 육박하자 전문가들은 인터넷서점의 제살까기식 할인경쟁이 계속되면 출판계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출판계와 인터넷서점계는

지난 3월 26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인터넷서점의 새로운 할인판매 방식에 대해 10% 이내 할인에 5% 이내 마일리지를 적용하고, 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데 1차 합의했다. 그러나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논쟁이 다시 불거진 건 4월 12일이었다. 북파크가 일부 베스트셀러에 대해 신간으로서는 이례적인 40%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해 이른바 '10+5'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 이런 와중에 오프라인서점들도 책값 인하 및 북클럽 회원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거의 연중 할인판매를 강행해 “책값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지난 11월 13일 여야 의원 28명의 공동 발의로 의원입법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은 한동안 물밑에 가라앉았던 도서정가제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발행 1년 이내 간행물의 10% 할인 한도 규정과 이를 초과해 할인할 때 최고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그동안 마땅한 기준 없이 표류하던 출판·서점계의 유통문제를 국회에서 공식 논의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일반 공산품과 다른 도서출판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반기는 오프라인 서점계와 “책값 할인폭 제한은 시장논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원하는 가격에 책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터넷서점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동원대 출판미디어과 부길만 교수는 “도서정가제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책값 할인폭 10% 규정은 책 고유의 문화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양쪽 입장을 살핀 적당한 절충주의보다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슬람, 마르크스 관련책들 출간 붐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슬람 문화의 불모지였다. 그러나 지난 9월 11일 미국을 강타한 자살테러 여파로 때아닌 이슬람 특수성을 맞았다. 이슬람과 미국, 테러 등을 다룬 책들이 독서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뤘다. 테러 사건 이후 곧바로 9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종합순위에 등장한 《이슬람》(이희수 외, 청아출판사)을 비롯해, 《이슬람, 그들은 누구인가》(가토 히로시, 남규형 외, 고도), 《미국은 과연 특별한 나라인가》(김봉중, 소나무) 등이다. 최근엔 14세기 한 이슬람 지식인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대륙 여행기를 담은 《이븐 바투타 여행기(전2권)》(이븐 바투타, 정수일, 창작과비평사)와 《빈 라덴과 알카이다》(요나 알렉산더, 김병국, 동아아시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의 전기 《오사마 빈 라덴》(요제프 보단스키, 최인자 외, 명상) 등도 잇따라 출간됐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슬람 등 타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르크스 관련서적도 꾸준히 출간됐다.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고병권, 그린

비), 레온 트로츠키의 《트로츠키의 반(反) 파시즘 투쟁》(박성수, 풀무질), 트로츠키의 자서전 《나의 생애》(박광순, 범우사), 로자 룩셈부르크의 서간집과 평전을 함께 묶은 《자유로운 영혼 로자 룩셈부르크》(오영희, 예담), 《레닌》(로버트 서비스, 정승현 외, 시학사), 《호치민 평전》(찰스 펜, 김기태, 자인) 등이다. 마르크스 관련 서적 출간 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인물평전' 열기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한 평전 출간을 추동했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 찾기의 일환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보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전근대적 유통관행이 빛은 도매상 부도

지난 10월 4일 들려온 서적도매상 청용의 부도소식은 출판계의 해묵은 과제인 유통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출판인들은 출판유통 개선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와 맞닥뜨렸다. 이미 1998년 도매상 연쇄부도를 경험한 출판계에선 사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부도 예비금'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출판계는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출판계 전반의 불황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적 변수를 견디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유통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엔 서점도 전문화·대형화 추세로 진입하면서 대형 도소매상의 지방진출로 가뜰이나 어려운 중소서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서점수는 약 2천 9백여개로 지난해보다 5백여개, 1997년 유통대란 이전보다 무려 1천 5백여개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서점과 각종 할인마트의 등장, 잇따른 소형서점의 폐업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유통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의 출범, 전자책 솔루션 업체인 와이즈북과 도서관 관련 인터넷 콘텐츠 회사인 북토피아의 합병이 이뤄낸 공룡급 콘텐츠사인 '와이즈북토피아'의 탄생, YES24의 POD서비스 실시, 씨티문고의 편의점형 영방식 도입,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해리포터> 열풍, 어린이책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한층 더 뜨거워진 신화 열기, 방송사 책관련 프로그램의 편성 확대, 베스트셀러와 기타 도서의 양극화 현상 심화, 베스트셀러 후광 업고 등장한 패러디 붐, 조심스레 일고 있는 책값 상승, <책세상 우리 시대 문고> <창해 ABC북> 등 문고 시리즈물 출간 붐, 불법복사와 표절 심화에 따른 학술도서 저술 중단·출판 중단 발표 등을 올 한해의 출판이슈로 꼽을 수 있다. —박옥순 기자